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4.13~2015.4.19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헤인	수오서재	6	법상행복 행복해지고 싶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법륜	나무의마을
2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월호	(주)조계출판사	7	붓다프로젝트	원담	민족사
3	설전(법정이문고성철이답하다)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심	8	관찰하는 나, 깨달음의 지혜의 토착민	성전스님	담앤북스
4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원순	번역 법공양	9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허운/정원규	불광출판사
5	능엄경 대의불이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10	약사경강의	남회근	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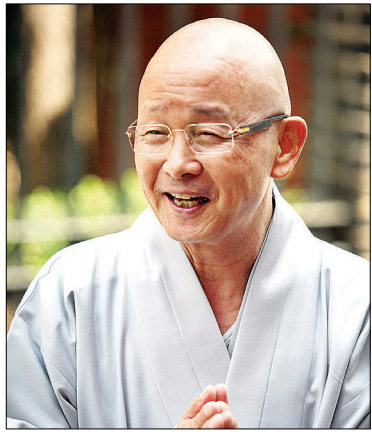
“염불, 내 자신 아미타불과 일치시켜 줘”

혜충 스님의 아미타경 강설

혜충 스님 지음 | 조계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냈고, 현재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추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혜충 스님(부산 감로사 주지·사진)은 자운 율사를 40여 년간 시봉했다. 혜충 스님은 스승이 매일 아미타불 종자 진언을 1만 독



하고 스스로를 상참괴승(常慙愧僧)이라 칭한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왔다. 또한 스님 본인이 <아미타경> 독송과 광명 진언, 아미타불 종자 진언, 정토 나라니를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수행했다. 그 과정에서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인 신심은 모든 수행의 근본임을 몸으로 배웠다. 혜충 스님은 “믿음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는 진리를 체득한 것이다. 그런 스님이 1년 동안 불교언론에 연재한 <아미타경 강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불자라면 입버릇처럼 염불해 온 ‘나무아미타불’에는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여섯 자 염불의 주인공인 아미타 부처님은 잘 알고 있듯 서방정토의 부처님이다. 그런데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땅인 서방정토의 존재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 그리고 극락왕생의 방법이 담긴 경전이 있다. 바로 <불설아미타경>이다. 대부분의 경전이 제자들의 간청에 의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진 반면 <불설아미타경>은 부처님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경(無問自說經)’이라는 특징이 있다. <불설아미타경>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서방정토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모든 선근 공덕을 닦아 서방정토에 왕생하라고 말한다. 더불어 일념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라고 권한다.

혜충 스님은 <불설아미타경>을 33개로 나눠서 그 구절에 담긴 내용을 해설했다. 그리고 도서 말미에는 한문 <불설아미타경>과 우리말 <불설아미타경> <정토예경>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을 비롯해 염불 공덕과 인연 이야기를 담은 부록을 수록했다. 이 책은 <아미타경>뿐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혜충 스님은 깔끔한 문장으로 왜 아미타 부처님 만나길 서원 하는지, 그리고 왜 서방정토에 가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서 강설 중간중간에 <삼국유사>나 <왕생록>과 같은 고서에 전하는 왕생담, 그리고 설화를 소개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염불 수행의 수승함을 밝힌다. 이와는 별

개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강설 저본으로 우리말 <아미타경>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강설서는 한문 경전을 저본으로 삼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우리말로 옮긴 <아미타경>을 바탕으로 각 구절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을 풀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렇게 우리말 경전을 바탕으로 한 것은 경전 내용이 어렵지 않은 데다,

<불설아미타경>, 무문자 설경이 특징 33개로 나눠 구절에 담긴 내용 해설

한 글자 한 글자의 세세한 뜻보다 경전이 담은 내용을 음미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기 때문이다.

혜충 스님은 이 책에서 “염불은 단순한 미신도. 맹목적인 신앙도 아니다. 모든 수행을 포섭하고, 무수한 과거 겁의 악업을 소멸하며 우주의 주인인 나를 적극적으로 발현한다. 염불은 나를 아미타 부처님과 일치시키는 신나는 수행이다.”라고 염불의 공덕을 밝힌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일심으로 발원하고 염불해 아미타 부처님의 땅 서방정토로 들러야 하는가. <불설아미타경>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그 땅의 모든 존재는 성불을 위해 준비했고, 또 그곳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불이 예약된 존재들이다. 그래서 정토왕생이란 성불을 위한 지름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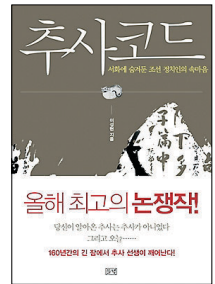
우리가 발원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하는 것은 일신상의 평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서방정토에 가고 싶은 원, 다시 말해 성불하고자 하는 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혜충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업이 너무나 무겁거나 근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어떻게 해야 성불할 수 있는 것인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 등 성불을 원하는 이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 보라”고 조언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추사가 고증학에 10년을 바친 이유는?

추사코드

이성현 지음 | 들녘 펴냄 | 2만 2천원



“우리가 알던 추사 김정희는 추사가 아니었다.”

괜한 어깃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또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된 시초는 우리 서화에 대한 기존 해설의 빈약함과 왜곡서 출발한다. ‘아는 만큼 보인다’며 현란한 용어를 구사하는 해설가들 앞에서 일단 고개를 끄덕였지만, “알게는 된 것 같는데 뭐가 보인다는 걸까?” 하는 내면의 의구심은 잠재우지 못했다.

현역 화가인 저자는 한국화, 나아가 중국화를 포함한 동양화에 대해 큰 의문을 품었다. 우리 그림은 왜 이리 단순한 표현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가 잘 모르는, 표현상의 어떤 압축적 제약이 있기 때문일까? 반대로, 혹시 그 제약이란 것이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닐까? 많

은 서화들을, 특히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전후의 서화들을 읽어내면서 저자는 일종의 벽을 느끼게 됐다. 이를 풀기 위해 그림 자체뿐 아니라 주류 성리학과 비주류 실험 및 고증학, 아울러 당대의 정치적 맥락 등을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저자를 감춰진 비밀을 추적해 들어가는 탐정(?)으로 만들어놓았다.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저자는 추사에 집중했다. 추사가 살던 시대는 세도정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다. 정조가 승하한 후 자기 아버지 세대로서 조선 실학의 꽃망울이 꺾이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성장한 추사는 실학의 씨앗적인 고증학에 눈을 돌린다. 배움의 최종 목표를 ‘치국평천하’에 두는 유자(儒者)라면 마땅히 자신의 배움을 세상의 밝은 도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배우고 그렇게 길러진 사람들이 조선의 선비들이다. 김정희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문예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던 김정희가 10년의 세월을 고증학에 바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무렵 추사의 속내를 가늠할 수 있는 찬문이 남아 있다.

이미 주희가 공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다

아는 만큼 보이는 사찰 안내 여행기

나를 위한 사찰여행 55

유철상 글 사진 | 상상출판 펴냄 | 1만 6500원



사찰여행은 나를 위한 힐링 포인트

이 책에 실린 55곳의 절집들은 저자가 여행전문기자로서 우리 땅 구석구석을 걸으며 만난 사찰들이다. 사찰을 찾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넣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내용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 절과 관련된 이야기나 역사적인 사건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것은 사찰에서도 역시 통하는 말이다. 이 책에 소개된 절집들이 최고의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휴식, 마음, 수행, 여행, 힐링 등 테마에 맞게 사찰을 소개한 점은 장점이 다. 이 책은 15년 동안 전국의 사찰을 찾아다

닌 저자의 공력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자신과 공감이 맞는 여행지를 발견하고 여행을 나서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나를 찾아 떠나는 사색의 숲, 사찰여행 마음에도 무게가 있을까? 없다면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이것은 무엇인가. 생각에도 크기가 있을까? 없다면 머릿속을 꽉 채운 이것은 무엇일까. 크게 무리 없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는 공허감이 몰려올 때가 있다. 문득 뒤를 돌아보면 행복도, 즐거움도 간데없고 방향을 잃은 채 등 떠밀린 것처럼 휩쓸려 사는 자신이 보인다.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먹고 소비하고 혹은 낭비하는 가운데서 즐거움을 찾으려 발버둥치곤 한다. 그러나 근원을 채우지 못하는 행동은 더 큰 갈증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럴 땐 걷기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유유자적 걸으며 그곳에서 나를 찾는 여행, 그것이 바로 사찰 여행이다.

설명했는데, 무엇이 답답하다는 것이고 무엇을 증명하고자 한다는 것인가. 추사는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향해 “공자께서는 그리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고증학을 연구 하던 것이다.

결국 추사가 조선에 공자를 직접 모셔오려 한 것은 조선 성리학의 폐해와 허구성을 바로 잡기 위함이다. 추사의 큰 뜻은 효명세자(후일 익종으로 추존)의 스승으로서 왕세자가 부왕 순조의 대리청정 하고 있을 때 잠시 펼치려 했으나, 그의 요절로 꺾이고 만다. 복원한 안동김 씨들은 추사를 제1의 위엄인물로 표적 삼았다. 그들의 세도를 흔들림 없이 한 것은 조선성리학이라는 이념의 독점인데, 추사는 바로 그 이념에 근본적인 도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든 추사를 제거하려 했고, 추사는 이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한편 정치적 의지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했다. 그것은 다음 아닌 그의 서화였다. 자신의 복귀를 위한 노력과 흥선대원군을 통한 정치적 목표의 추구는 모두 정적들이 알아볼 수 없는 서화 속으로 감춰지게 된다. 그가 숨겨놓은 한 글자, 하나의 선과 점도 쉬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살던 천재 김정희의 정치관과 정책 방안이 교묘하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의 서화 속에 숨은 추사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김주일 기자

사는 게 시련당한 사람들이여, ‘절’로 오라!

여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여행을 꿈꾸고 산다. 다른 삶의 풍경을 보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혹은 매일이 한결같은 답답한 일상에서 괜히 초조해서, 여행하는 이유나 목적은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여행의 기억을 펼쳐놓고 자료해보자. 어떠한 조금증도 없이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해 떠난 여행이 몇 번이나 되던가?

사찰여행은 나조차도 잊었던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삶의 여백과 서정을 느낄 수 있는 산사에 가보자. 저자 유철상이 추천하는 여름 산사 3곳은 ‘마곡사’ ‘미황사’ ‘해인사’다.

마곡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눔으로써 나의 마음을 반추해보는 ‘차비 명상 템플스테이’와 산길을 맨발로 걸으며 마음을 조절하여 자연을 즐기는 ‘맨발 산행’이 가능하다.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집으로 유명한 미황사에서 서서 내면의 울림을 듣고 다도해에 시선을 두면 무한한 사색에 빠져든다. 통도사, 송광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꼽히는 해인사에서 불교 정신의 총화인 팔만대장경 인경 체험과 산내 암자 순례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의 마음을 흠뻑한다.

김주일 기자

응의 분석심리학으로 바라본 선사들의 깨달음!

자아(自我)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대상이며, 자아를 아는 것이 무아이고,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선사들이 어떻게 자아와 직면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일화와 어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조사선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최초의 책.

심리학으로 통하다

최명희 지음 | 신국판 | 무선 | 380쪽 | 값 17,000원

정토삼부경연구해

불교의 다양한 수행법 가운데 가장 쉽고 성취가 빠른 정토 및 염불 수행!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해설과 주해를 통해 알기 쉽게 만나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무생법인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번역 및 해설 서주 태원 | 신국판 양장 | 632쪽 | 값 30,000원